



이해리의 듀얼인터뷰 | 영화 '사바하' 장재현 감독 & 제작자 강혜정 대표

“끝까지 믿어준 베테랑 파트너” “완벽한 시나리오 흘린듯 OK”

장재현 감독

무궁무진한 불교의 세계에서 영감 덕심으로 찾고 과학적으로 다듬고 내가 보고싶은 영화 찍으려고 했죠 강대표와는 농담을 해도 쿵짝 맞아



강혜정 대표

회사 입장선 독박위험 있었지만 빈틈없는 세계가 설게돼 있었다 감독은 마음껏 하라 해야 작두 타 겁 없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싶다



영화 '사바하'를 통해 매력적인 다크월드를 펼친 장재현 감독(왼쪽)과 제작자인 강혜정 대표. 데뷔작으로 성공을 맞은 감독과 베테랑 제작자가 만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야기를 관객에 선사한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국영화에 '다크월드'가 열렸다. 인간의 심연을 파고드는 악에 대한 세계가 영화 '사바하'를 통해 탄생했다. 3년 전 가톨릭 구마의식을 다룬 '검은 사제들'로 다크월드를 시작한 장재현 감독이 세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기독교와 불교, 불교에서 출발한 신흥종교와 무속신앙이 뒤섞인 '사바하'는 신을 찾으려다가 악과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다. 낯설고 섬뜩한 세계관을 완성한 주역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38)과 영화사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49)다. 노련한 제작자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타일로 압축해 설득력 강한 상업영화로 완성했다. 개봉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사바하' 설계자들을 만났다.

-어떻게 시작했나.

강혜정(이하 강) “모든 걸 떠나 시나리오였다. '검은 사제들' '곡성'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기본이었다. 흘린듯 결정했다. 물론 감독이 앞서 거둔 성적(544만 명)은 엄청난 부담이 됐다. 제작하겠다고 하자 류승완 감독(강혜정 대표의 남편)은 ‘뭘 해도 회사 입장에선 플러스는 없다’고 하더라. 맞다. 그래도 거부할 수 없었다.”

-'검은 사제들' 뒤 왜 '사바하'인가.

장재현(이하 장) “자료 조사를 하다 불교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살짝 엿보고 공부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진 나의 답답이 기독교 해묵은 왕과 아기예수의 탄생 이야기다. 두 가지가 섞이면서 '사바하'가 탄생했다. 종교보다 장르로 풀고 싶었다.”

-외유내강과 손잡은 이유는.

장 “'검은 사제들'이 여성적이라면 외유내강의 영화들은 주로 남성적이지 않아. 좀 유리하게 배울 수 있다고 봤다.(웃음) 늘 배우고 싶다. 영화도, 커뮤니케이션도.”

강 “미스터리 스타일이라고 해도 비현실적인 장르가 뒤섞인 영화는 우리도 처음이다. 처음부터 장 감독은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했다.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 우리 같이 가보자’ ‘너는 너의 싸움을, 나는 나의 싸움을 해보자’ 했다.”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로 한국형 오컬트의 시대를 열고 콘텐츠 확장에 기여했다. 기대 속에 내놓은 '사바하'는 신흥종교의 비리를 파헤치는 박목사(이정재)가 강원도 일대에 퍼진 사슴 동산을 통해 악의 실체에 접근하는 이야기.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도를 맡은 강혜정 대표는 동료인 류승완 감독과 '부당거래' '베를린' '베터랑' 등 선 굵은 영화를 만든 베테랑이다.

-감독의 세계가 공고해졌다.

장 “시나리오 쓸 때 간섭받지 않고 쓴다. 뿌리는 작가가 만들어야 증명하다. 그 뒤 대표님과 회의를 통해 산만한 부분이 한층 간결해졌다. 경험 많은 분들이라 ‘어차피 편집될 거야’ 그러면서 빼자고 하더라. 처음엔 야속했지.(웃음) 그래도 구력은 무시할 수 없다.”

강 “감독의 엄청난 취재가 가장 인상 깊었



영화 '사바하'

다. 하고자하는 바도 분명했다. '영원한 악도 영원한 선도 없다', '선의 끝은 악, 악의 끝은 선일까'라는 의문을 담은 세계가 빈틈 없었다.”

-취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장 “종교 관련 교수님이나 실제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사람과 책, 두 개가 전부다. 그리고 구박사(구글 검색), 하하!”

-흔쾌히 만나주나.

장 “'검은 사제들' 땀 신인이라 어려웠으나 지금은 조금 낫다. 안될 땐 고민하다가 소설가 명함을 만들어 다녔다. 소설가라고 하니가 조금 애뜻하게 보더라.”

-데뷔작 성공으로 부담이 컸을 텐데.

장 “감독은 보통 욕망의 덩어리잖아. 대부분 찍고 싶은 걸 찍지만, 내 좌우명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자'이다. 촬영도 멋있게 찍기보

다 관객이 보고 싶어 할만한 장면을 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끊임없이 묻는다.”

-가치관이 남다르다.

장 “마니아적인 성향이 강해서 더 조심한다. 내 결정으로 소기업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상업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나. 감독의 일은 자존감, 자괴감과도 붙어 있고 흥망성쇠의 상처도 곧바로 온다. 그러니 신중해야 한다.”

-장재현은 '욕망 덩어리'가 아닌가보다.

장 “엄청난 욕망 덩어리지. 다만 절제하면서 최대한 정직하게 만들려고 한다. 처음 대표님이 '마음대로 찍어라, 대신 촬영 회차와 예산은 맞추라'고 했다. 외유내강은 감독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촬영하고 편집할 동안 단 한 번의 간여도 없었다.”

강 “오죽하면 주변배우들이 촬영장에 왜 안 오냐고 묻더라. 감독, 프로듀서, 배우가 잘 만들고 있는데 왜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 제작자가 굳이 창작 현장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장재현은 어떤 감독인가.

강 “아주 스마트하고 영특하다. 양보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다. 완급조절이 능란하다. 감독은 비즈니스 마인드, 예술적인 취향을 함께 가져야 살아남는다. 류승완 감독과 일면 성향이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한가.

장 “뒤끝 없는 것?”

강 “아니야~. 하하!”

장 “합이 맞다. 류승완 감독님 아이디어를 내가 속 취하기도 하고, 하하!”

강 “류승완 감독과 일하면서 연출자의 의연과 내면이 확장되는 걸 본다. 그럴 땐 부끄러워한다. 장 감독의 성장과 성숙도 과감하게 이뤄진다. 보통내가 아니지. 제작자한테 아주 어려운 감독이고.(웃음)”

장재현 감독은 비행기 정비담당으로 군복무하다 감독의 꿈을 세웠다. 한 영화사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바퀴벌레의 해결사'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내 경쟁자를 받은 게 계기다. “나한테도 재능이 있구나” 싶어 복무 도중 대입을 다시 준비해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진학했고, 2010년 영화 '특수부' 연출부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남들 안하는 걸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는 “성격이 밝고 개구쟁이다보니 반대로 어두운 세계를 동경한다”며 “'덕후(오타쿠)다운 '덕심'도 많다”고 했다.

-'덕심'이 발현될 때는.

장 “취재할 때, 시나리오는 과학적으로 쓰고 연출은 감각으로 한다. 편집은 아주 냉정하게. 앞으로도 작고 깊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물론 더 어렵다.”

-외유내강의 방향도 궁금하다.

강 “개인적으로는 앞선 영화(군함도)와 관련한 부침 속에 스스로 재정립했다. 내 작품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해지는 용기가 생겼다. 해보지 않은 장르도 원한다. 이틀이면 진한 멜로!”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연기자 김보라-조병규 열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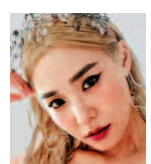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커플이 탄생했다. 연기자 김보라와 조병규이다. 두 사람은 21일 "2월 초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관계를 인정했다. 김보라는 이날 자신의 팬카페에 "큰 충격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하다"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라와 조병규는 1월에도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부인한 바 있다.

박하선·이상엽 채널A 새 드라마 주연



연기자 박하선과 이상엽이 채널A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주인공을 맡는다. 상반기 박하선 이상엽 기 방송을 준비하는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금기된 사랑으로 아픔을 겪는 어른들의 성장 드라마다. 박하선과 이상엽은 드라마에서 새끼 손지는, 대안학교 생물교사 윤정우 역을 각각 맡아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다. 2014년 일본 후지TV가 방송한 '페꽃, 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티파니 영 첫 미국 EP 앨범 출시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미국에서 EP 앨범을 출시한다. 티파니는 미국 활동에서 '티파니 영'이라는 이름을 쓴다. 소속사 트랜스퍼티파니 어린트아츠는 "티파니 영의 EP 앨범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밤 0시 발매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음원사이트에서는 22일 오후 2시 공개된다. 앨범에는 1월 먼저 출시한 '본 어게인'을 포함한 5곡이 수록됐다. 티파니 영은 3월부터 뉴욕, 시카고, 시애틀에서 쇼케이스 투어를 연다.

김종국 9년만에 단독 콘서트



가수 김종국이 9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 JK엔터테인먼트는 "김종국이 3월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2019 김종국 콘서트-김종국 찾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이날 SNS를 통해 콘서트 소식을 팬들에 전했다. 그의 단독 콘서트 '김종국 찾기' 티켓은 22일 낮 12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시작한다.

영화 '그린 북' 30만 관객 돌파



영화 '그린 북'이 30만 관객을 돌파했다. 1962년 미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셸리와 허풍이 심한 매니저 토니의 콘서트 투어를 그린 영화는 200개 미만 상영관의 다양성영화로 관객을 찾고 있지만 꾸준한 선택 속에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린 북'은 25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 수상후보이기도 하다. 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과 각본상 등 후보에 올라있다.